



언론중재위원회는
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
기다리고 있습니다.
「언론  사람」을 읽고 나서
느낀 점 등을
성명, 연락처와 함께
이메일(pac_news@pac.or.kr)로
보내주세요.
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
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.

**서민영-**

도서관에서 만나게 되었어요.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서로 분쟁이 있게 마련인데 실타래처럼 잘 풀어 나가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. 특히, 매스미디어가 엄청나게 발달한 현재를 살아가다보면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,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생각해 관심 갖고 보게 되었습니다.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고 놀라운 것은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전문교육과 언론 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도 제공하고 있다니 유익한 정보네요. 아참! 요즘 청소년들의 카톡 및 인터넷에 생각없이 올린 글들로 인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를 위한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잊혀질 권리라고 하냐요? 언젠가 방송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긴 한 것 같아요. 조정후기의 '저는 억울합니다'의 기사도 유익했습니다. 실전을 바탕으로 써주신 것이라 이 기사를 읽고 참고하시는 독자들도 많겠어요. 읽으면서 법 용어도 알게 되고 어쩐지 뿌듯한 생각까지 듭니다. 이번 호 너무 감사히 잘 봤습니다.

구민정-

잠시의 여유동안 「언론  사람」을 보려고 했는데 기사가 재미있어서 끝까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. 7월호에 연재된 <역사 속 언론> '글쓰는 전문직업인 조선의 사관'이 흥미로웠습니다. 옛날에 사관이라는 직업이 가지는 의미와 오늘날의 언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유익한 기사였습니다.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가 하고 있는 업무를 알게 되고, 실제 조정과정을 간략히 접할 수 있었습니다. 다음 호에서도 좋은 기사 기대하겠습니다.



소통하는 창,
언론중재위원회 SNS

여러분과 친구가
되고 싶어요!

 www.facebook.com/pacnews
 twitter.com/pac_news